

# 유일 영문 불교학술지 동국대서 발간한다

### 동국대·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2일 'IJBTC' 이관식

국내 유일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의 발행처가 동국대로 이관돼 발간된다. 지금까지는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편찬해 왔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2월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IJBTC' 이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관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송석구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장과 불교대학 및 불교학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바트(인도 델리대 교수), 권기중(동국대 교수)가 참여하며,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수석 부회장과 편집장을 맡았다. 매회 300부를 발행해 해외 학술기관과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며, 하버드대, 예일대, 콜럼비아대 등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학회 창립 영문 불교학술지 'IJBTC' 선보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25집 발간**

**재정 안정화·전문 편집인 양성위해 동국대로 발행처 이관 '통근 결정' 보광 스님 "국제적 학술지 만들 것"**

그간 IJBTC의 편집장으로 활동한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IJBTC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세계 불교학자와의 교류, 그리고 불교학 학제 간 연구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실제 제2집에 국제원효학회와의 협조를 개제된 12편의 원효 관련 영문 논문은 구미



동국대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2월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IJBTC' 이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송석구 학회장(가운데)이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각국에서 한국불교학 강의 교재로 사용 중"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발행 학술지 IJBTC의 발행처를 동국대로 이관한 것은 재정 안정화와 함께 전문 편집인 양성, 정기적인 국제 학술대회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국제적 명성의 영문 학술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풍부한 인력 인프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송석구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장은 "동국대는 불교학의 본산이다. 이제는 IJBTC를 동국대에서 말아 세계적 학술지로 성장시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송석구 학회장과 김용표 교수가 10여 년간을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행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많은 애착이 있었을 텐데 큰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면서 "불교학술원과 불교대학 등도 IJBTC에 대한 관심이 높다. IJBTC를 A&HCI 등재하는 등 국제적 명성의 유수의 영문 불교 학술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석구 학회장은 이관식에서 불교학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총장 보광 스님은 그간 IJBTC 발행의 노고를 치하해 송석구 학회장과 김용표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문화유산, 3D 데이터로 만나보세요

### 문화재청, 2월 1일부터 3D 데이터 121점 제공

예산 수석사 대응전, 영광 도감사 해탈문 등 불교 문화유산을 3D 데이터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정보문화원(원장 김소연)과 문화유산 89건 121점에 대한 3차원(3D)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서비스되는 자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원천 데이터(ASC파일, PLY파일)는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을 통해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점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사용범위에 따라 산정된다. 하지만, 동영상·PDF·ICF·도면 등 서비스용 데이터는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원형정보의 디

지탈 기록화를 통해 복원·보수 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출판·영상 분야 등에 공공 저작물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문화유산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엔 제공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 등이 적용됐으며, 앞으로 문화재 수리·복원, 구조 설계분야는 물론, 전문문화상품 개발, 전시용 복제품 제작, 입체영상 구현 기술(S3D) 콘텐츠 제작 등 문화산업, 정보통신(IT)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작한 21건 46점의 데이터베이스는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서비스된다.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유산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문화재 원형의 온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록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 공유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무료로 제공되는 수석사 대응전 일원의 3D 스캐닝 촬영 영상.

## “올해는 조계종 브랜드 이미지 UP의 해로”

조계종이 2016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월 1일 서울 인사동 선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소장 법안 스님(사진)은 총 29개 사업 중 특히 조계종 브랜드 이미지 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국민들에게 불교라 하면 그동안 수행, 명상 등의 좋은 이미지도 있었지만 자리다툼, 폭력 등의 부정적 이미지도 많았다”며 “불교가 역사 속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불법공동체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미지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사회연구소는 5월 중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연구 보고서를 11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의 세부연구 내역으로는 이미지 진단 및 평가, 이미지 전략평가, 대국민 이미지 조사, 이미지 전략 및 리모델링 연구 등이 담겨 종단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신년계획 밝혀

- [총책연구] 인사·재정 문제 연구
- [사회연구] 헬조선 치유방법 모색
- [호국불교] 호국의의의날 제정 추진

이미지 조사와 함께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던 인사 및 재정 투명화에 대한 정책연구도 진행된다. 먼저 사찰 재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교구단위 중장기 재정운영정책을 검토하고 비자립사찰 추이분석 등 불교계 재정 현황 및 환경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종단 소임현황을 분석하고 직위별 직무자격 요건을 검토해 바람직한 인사제도를 제안한다. 법안 스님은 “불교계 내에서도 사찰별 재정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신교 중 감리교회의 경우 최근 재정이 열악한 교회의 목회자 외부 적격 겸임이 허가 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불

교계도 예외상황은 아니기에 이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불교행사의 과정을 정리한 의전편람 연구보고서(2월) 및 수행체계 연구보고서(3월), 교구활성화 연구보고서(4월) 등도 발간한다. 또 사회변화에 맞춘 불자들의 활동의 표준 지침인 '불교와 사회' 교재 발간도 8월 진행되며 종교공동체 세미나도 7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된다. 또 소외계층과 사회 변화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다룬 보고서도 다수 발간된다. 먼저 2월 중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며 3월에는 불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4월에는 교과서 개정에 맞춰 윤리와 역사, 사회교과서 집필진에 참고

매뉴얼을 펴내 제공할 계획이며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온다. 8월에는 한국 계층 갈등의 핵심인 부의 재분배와 헬조선 현상을 다룬다. 법안 스님은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계층간 삶의 질이 현격히 차이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 중에는 비정규직 문제 및 청년 실업에 대한 연구, 10월에는 선진국 진입의 과제와 주제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국민행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올해 호국불교 사업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계 3·1운동 관련 인사의 활동내역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10월 중에는 보훈사 서산대사 남북합동 제향을 추진하며, 11월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금산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려시대 승려 법맥도를 발간하는가 하면 '조선시대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대중공사 100인 위원 공개모집

조계종(총무원장 지승)이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가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는 1월 25일 공고를 통해 100인 대중공사 위원 동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사부대중이 주체가 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대중공의를 수렴하고 평등하고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대중공사는 중앙과 지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3월 31일과 5월 26일, 7월 14일, 10월 20일, 11월 24일 등 총 5차례

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다. 지역 100인 대중공사는 권역별로 교구본사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제는 대중공사를 통해 중점의제 2개(단기과제, 근분과제)와 현안 의제를 선정한다. 특히 중점의제의 경우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상시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 모집은 교구본사 추천 신청과 함께 출제가 각 영역을 대표하는 부문별 추천 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여기에 자발적인 동참 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동참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 주택가 도로 집, 정남향 과천토지 매각!

GB정책, 용도지역제에서 개발행위허가제로 / 국토부, 과천 그린벨트 풀어 임대주택(뉴스데이) 5700세대 건설 확정!

**수도권 규제 더 풀다!**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주민실태조사 실시중!  
재산권 행사 허용(개발행위 허가 등) 규제 개선으로 지역개발 탄력 발돋움...

과천시, 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규제완화 최대 수혜 예상지-과천”

3.3㎡당  
35만원부터~

**2016년 투자유망 부동산-그린벨트 내 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는 서울 인접한 과천·남양주 등 그린벨트 해제 가능 성 높은 도시지역 토지 관심  
2015년 12월 13일자 한국경제 기사

**“그린벨트, 주민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종료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돈이 되는 대박투자 - 숨어있는 도심지 토지!** (과천시지정정보타운·과천C 인근)

- 매각지 진입로 사기막골 타운하우스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그린벨트)

과천, 그린벨트 규제 대거 풀린다~

과천시, 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과천~양재간 지하철 연결 추진중...  
과천·주암동에 57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발표

3.3㎡당 35만원부터~

(매각단위 : 330㎡)

※인접 토지, 3.3㎡당 1,500~3,000만원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700~800만원)

■100만원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등기이전) | 청약신청 02)2058-0132

▶청약금→필자배정→계약금→잔금납입→소유권 등기이전 | 일요일 공휴일 상담